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동진* · 김나연**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변인 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2차년도(2014) 조사데이터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Baron & Kenny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은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였고,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낙인감, 우울,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I. 서론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은 교사로부터의 학문적인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교사와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에서의 대인관계를

* 주저자,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wookana@hanmail.net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학습해나간다(최유선, 손은령, 2015; 김현옥, 김정민, 2015).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학교에서의 경험하는 것 또한 동일하지 않다. 청소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학교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난 이들이 있는데, 2014년 5월에 제정되고 2015년 5월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들을 공식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는 일반적인 청소년이 경험하는 발달과정 상의 어려움뿐 아니라 문제아 또는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정아 외, 2006; 김경준, 2010; 명소연, 조진옥, 2016; 이민화 외, 2017).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남들과 다른 편견과 차가운 시선, 가족과의 갈등 등 학교를 그만둠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서정아 외, 2006; 백혜정, 송미경, 2015; 이재영, 2018).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가운 시선, 학업 중단으로 인한 교사, 친구 관계 단절, 부모를 비롯한 가족관계 고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영향도 있었으며, 이제 신분이 학생이 아니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에서의 소외,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사회적지지 부족 등을 경험하게 된다(윤철경 외, 2014)

학교 밖 청소년을 지칭하는 과거의 용어들만 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육성필 외, 2017). 과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칭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 중퇴, 학업중퇴 청소년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었는데(김범구, 2012; 조혜영, 2019), 이는 청소년이 어떠한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업을 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궤도이고,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퇴 혹은 중도 탈락과 같은 개념들은 ‘학교 부적응’의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탈선이나 낙오의 이미지를 담아 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육성필 외, 2017).

많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원인을 개인에게도 돌릴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개인마다 처한 사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이 거치는 학업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인하여 사회와 주위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감을 경험한다(이화명, 김영미, 2017). 특히 그 학업에서 벗어난 것이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부적절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조혜정

외, 2017). 사회적 낙인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차별, 폭력, 배제 등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정효정, 2016; 이재영, 2018).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성장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이화명, 김영미, 2017). 이러한 어려움에 사회로부터의 부정적인 낙인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은 부정적인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해 차별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데(Bahm & Forchuk, 2008). 이것을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우울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Goffman(1963)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경험함으로써 우울 등이 야기됨을 지적한 바 있다. 우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분의 변화에서부터 병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기분상태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침울함, 무가치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는 기분장애를 의미한다(신준섭 외, 2011). 우울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권영란, 이정숙, 2009; 박남희, 김미옥, 2005; 신준섭 외, 2011; 장수한, 2014).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은 이들의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전경숙 외(2017)는 낙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Mickelson(2001)은 시간에 따라 낙인이 시간에 따라 우울과 강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우울이 인식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인식된 낙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역할만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개인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없는 존재로 여긴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내재화함으로써, 스스로 가치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게 된다(유양숙 외, 2012; 김민아 외, 2016; 정효정, 2016; 박옥자, 김혜경, 2018).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있는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치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가치롭다고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약점만을 강조하며, 스스로에 대해 부족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여긴다(Rosenberg, 1979). 박옥자, 김혜경(2018)은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힌 바 있으며, 김민아 외(2016)도 소아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각한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낙인을 다수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을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신재은(1998)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ge와 Meredith(1994)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진혜민 외(2011)는 비공식 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공식 낙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의 경우에 많은 경우가 장애인, 정신질환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 중 일부 간의 관계만을 살펴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김성용, 2014; 민혜진, 정원철, 2016; 전경숙 외, 2017; 이민호, 서미경, 2019).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역시도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으므로 이들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제적인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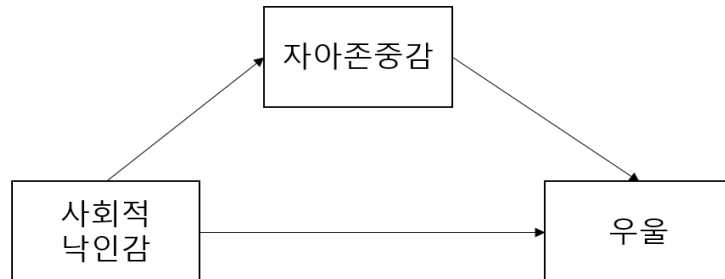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4)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차년도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59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인 93명과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3명,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고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49명 총 145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이 된 학교 밖 청소년은 454명이었다.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4) 조사 데이터의 원 데이터 중 종속변수인 우울과 독립변수인 사회적 낙인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별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낙인감은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2002)이 변안한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을 사용한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2010)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와 같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문항 중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역채점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낙인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819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2) 우울

우울은 이경상 외(2011)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 중 10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와 같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9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최인재 외(2012)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 가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와 같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8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회적 낙인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적 낙인감,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에서 조사한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4)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은 45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 275명(60.6%), 여 179명(39.4%), 연령은 15세 13명(2.9%), 16

세 20명(4.4%), 17세 101명(22.2%), 18세 192명(42.3%), 19세 115명(25.3%), 20세 9명(2.0%), 무응답 4명(0.9%)였으며, 454명 모두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 둔 상태였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수인 사회적 낙인감,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028~-1.148)이 3을 넘지 않으며, 첨도의 절대값(-.515~.959)이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5).

주요변수들 간의 Persons 상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낙인감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479, p<.001$). 종속변수인 우울은 독립변수인 사회적 낙인감과 관계에서 매우 강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r=.476, p<.001$),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우울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매우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463, p<.001$).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고 할 수 있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사회적 낙인감	2. 자아존중감	3. 우울
1. 사회적 낙인감	1		
2. 자아존중감	-.479***	1	
3. 우울	.476***	-.463***	1
최소값	8.00	5.00	10.00
최대값	30.00	20.00	36.00
평균	16.5242	14.7159	20.0330
표준편차	3.60195	2.59238	5.67487
왜도	-.028	-.138	-.148
첨도	.444	.959	-.51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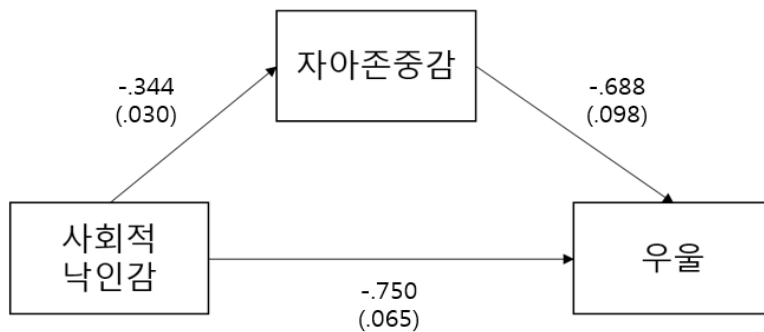
3.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R ²	F
	B	S.E	β			
사회적 낙인감 → 우울	.750	.065	.476	11.516***	.227	132.614***
사회적 낙인감 → 자아존중감	-.344	.030	-.479	-1.588***	.229	134.283***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 우울	.520 -.688	.071 .098	.330 -.305	7.353*** -6.794***	.299	96.008***

*** p<.001



*** p<.001

[그림 2]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는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6, p<.001$). 2단계에서는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9,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30, p<.001$),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5,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사회적 낙인감의 영향($\beta=.330, p<.001$)은 2단계에서 나타난 사회적 낙인감의 영향($\beta=-.479, p<.00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는 Z값은 -4.815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6, p<.001$).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 수준이 높으면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낙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경숙 외(2019)와 Mickelson(2001)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진혜민 외(2011)와 중국이원준, 이희진(2018)와도 유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개인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권영란, 이정

속, 2009; 박남희, 김미옥, 2005; 장수한, 2014),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 등의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79, p < .001$).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이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인을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는 박옥자, 김혜경(2018)과 김민아 외(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에 관하여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낙인감에 의해서 감소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 낙인감의 심각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 존재로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에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개선사업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30, p < .001$),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05, p < .001$). 이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신재은(1998)과 Barge와 Meredith(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청소년의 비공식 낙인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진혜민 외(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접근할 때에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및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된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학업중단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울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 개인의 부정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학업중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소 방황하는 모습들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및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낮추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을 높일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낮추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낙인감을 우선 낮추는 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다양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해야 했으며, 이는 학교 밖에서의 생활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중심의 시각을 개선시키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비롯하여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지원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에 있어서 사회적 낙인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낙인감을 감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우울이 상승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학업 중단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가능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를 종단적인 변화궤적을 추적하여 사회적 낙인감,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경준(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pp.5-31.
- 김민아, 장은혜, 이다지, 남석인(2016). 소아암 경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6(1), pp.497-528.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pp.315-337.
- 김성용(2014). 정신장애인의 스티그마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스티그마에 대한 자기보호적 속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2(3), pp.91-120.
- 김현욱, 김정민(2015). 청소년이 지각한 교우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 및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 초·중·고등학생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1(1), pp.291-310.
- 권영란, 이정숙(2009). 우울 청소년의 건강경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2), pp.217-228.

- 명소연, 조진옥(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pp.75-98.
- 민혜진, 정원철(2016). 정신장애인 가족의 낙인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재활복지, 20(1), pp.65-86.
- 박남희, 김미옥(2005).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건강관련행위 간의 관계 연구, Child Health and Nursing Research, 11(4), pp.436-443.
- 박영신, 김의철(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2), pp.25-52.
- 박옥자, 김혜경. (2018). 잠재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비공식 낙인이 자아존중감, 불안우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1), pp.3-24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2010). 취약 청소년 자립 지원 모형 개발,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백해정, 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2006).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재은(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준섭, 이강훈, 김경수, 이용일(2011). 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 : 충북지역 거주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pp.361-385.
- 유양숙, 김복연, 조옥희(2012). 한센병력자의 낙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근관절건강학회지, 19(3), pp.272-281.
- 육성필, 남옥남, 박지란, 박성혜, 김은영(2017).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 탐색 및 학업중단 인식 연구 - 강북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pp.535-561.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해정, 이종원, 김지영(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화, 서미경(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콘

- 텐츠학회논문지, 17(9), pp.549-562.
- 이원준, 이희진(2018). 중국 에이즈 고아들의 낙인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회피적 대처 및 미래기대의 이중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3), pp.121-148.
- 이재영(2018),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 융복합적 요인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10), pp.333-342.
- 이정수(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명, 김영미(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pp.549-562.
- 조혜영(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0, pp.485-498.
- 조혜정, 홍다영(2017).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pp.35-61.
- 장수한(2014).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자살, 우울, 스트레스)실태분석 및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23(4), pp.95-110.
- 전경숙, 최경원, 장광심(2017). 폐결핵 입원 환자의 낙인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6(4), pp.334-352.
- 정효정(2016). 지각된 낙인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pp.121-148.
- 최유선, 손은령(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pp.233-247.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ahm, A. & C. Forchuk(2008). Interlocking Oppressions: the Effect of a Comorbid Physical Disability on Perceived Stigma and Discrimination Among Mental Health Consumers in Canada.,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7(1), pp.63-70.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rage, D., & Meredith, W.(1994). A Causal Model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128(4), pp.455-468.
- Goffman. E.(1963). *Stigma*, London: Penguin.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ckelson, K. D. (2001). Perceived stigma,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04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Park Dong Jin · Kim Na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For this purpos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for the second year (2014) of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s Panel Study', which was constr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tigma and depress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In addi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Second, social stigma of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these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Third, self-esteem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and suggested suggestions for reducing social stigma and depression and improving self-esteem.

Keyword : Out-of-School Adolescent, Social Stigma, Depression, Self-Esteem, Mediating Effect, School Drop-Out Adolescents Panel Study

투고일 : 2019. 08. 31 심사일 : 2019. 09. 22. 게재확정일 : 2019. 9. 30.